

아는 것이 힘! 2016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 · 편집 고객홍보팀

“귀한 집 자식이랑~!” 최저임금 인상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광고가 화제가 됐다. 일명 '알바'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이 광고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아픈 이면을 고스란히 내보인다.

이 시리즈 중 하나에서 언급된 소재이기도 한 최저시급이 2016년 인상된다. 올해 책정된 최저시급은 6,030원. 지난해보다 8.1%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26만 270원이다.

모두가 각자의 집에서는 귀한 집 자식일 텐데, 2016년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만은 확실히 챙김시대!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 첫 선을 보인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데 연간 2,000만 원씩 총 5년간 납입할 수 있고 만기인출 시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대상은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대상이 되는 이들은 관심 가져 볼만하다.

주택담보대출 깎깎해진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우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객관성 높은 자료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매월 이지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거치식이 주류인데 반해, 2016년부터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는 비거치식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점차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출 돌려막기를 막겠다는 교육지책인데, 대출을 생각하는 이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강제된 셈이다.

돈 없어 죽는다는 말 들어들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심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먼저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기에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4대 중증질환. 2016년에는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더 찾을 수 있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이다.

기상 예보 시스템 및 기상 상담 서비스 강화

쏟아지는 자주 들던 기상 예보 시스템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기상 예보에 주로 사용했던 슈퍼컴퓨터 3호기 대신 슈퍼컴퓨터 4호기가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성능이 5,800TF로 758TF인 기존 슈퍼컴퓨터 3호기에 비해 이론적으로 놓고 봐도 7.7배는 뛰어나다.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다.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발해 사용자가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존 기상전화(131)도 정부 민원콜센터(110)와 연계해 확대 실시한다. 전문성 강화는 물론 서비스 확대까지 총총한 그물을 짰으니 2016년에는 우리 기상예보시스템도 지적 호기심 충만한 이들을 두루 감싸며 좋은 소리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2016년 빨간 날 총 118일. 작년보다 4일 더 된다

새해가 되기 한참 전부터 화제의 검색어에 줄곧 오르내렸던 키워드 중 국민 대다수의 관심몰이에 성공한 것은 단연 ‘2016년 공휴일’이다. 검색창에 ‘2016년’만 입력해도 연관검색어로 바로 뜰 정도다.

그리고 그 답은 총 118일. 2015년 114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일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가슴 설레는 소식은 2016년에는 설과 추석 모두 휴일이 5일이나 이어지는 황금연휴라는 것이다. 2월 8일 월요일인 설은 대체공휴일로 10일 수요일을 더 쉬게 되며 주말부터 5일 간 연휴가 이어진다. 추석은 추석인 9월 15일이 목요일로 14~16일 기존 추석연휴로 수·목·금을 쉬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주말까지 5일을 쭉 쉬게 된다.

뿐만 아니라 1월 1일부터가 금요일, 주말과 더불어 사흘 연휴로 기분 좋게 한 해를 열더니 앞으로도 사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날이 6월 6일, 8월 15일, 10월 3일로 3번은 더 있다. 삼일절이나 어린이날은 각각 화요일과 목요일인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휴가 선점을 위한 직장인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물론 제대로 모든 휴가를 다 찾아 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빨간 날’의 기분 좋은 설렘은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